



[지금은 전문대학 시대] 연암대학교 新 블루오션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04



Economy

코스피	2137.23 (0.00)	코스닥	664.60 (0.00)
금리 (미국 3년)	1.52 (-0.02)	환율 (원/달러)	1157.50 (-1.80) (10일)

올 대기업 인사 키워드는 '혁신'

재계 12월 정기인사 주목
불확실성 선제 대응 준비
미래성장 위한 혁신 예고
성과 중심 세대교체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 저성장국면 지속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재계가 12월 정기인사를 단행, 인적 쇄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 등 세대 교체를 끝낸 주요 그룹 총수들이 경영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올해 연말 임원 인사에 대한 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그룹의 '혁신' 바람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때문에 인사 시기와 폭이 불투명하다. 이 부회장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와 폭이 결정될 것이

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물론 이 부회장은 재판과 관계없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장 교체가 필요한 일부 계열사만 인사를 한 뒤 내년 1월 1일 재판을 끝내면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장단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

우 3조원대를 지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선전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밖에 '60세 물'이 올해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만 60세가 넘는 사장급 CEO는 대부분 교체 대상이 됐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래차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빠르게 영입하는 반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임원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측근이라도 과감하게 교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사를 통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

정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제네시스 사업부장은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또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 부문 사장단이 대거 교체된 바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2016년 3월, '바둑의 신'으로 불렸던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을 압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산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달해 우리 주위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피커 형태로, 또는 의료 지원 형태로, 또는 공장자동화 형태로 상용화됐습니다.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불췌 다가온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자리 잡을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 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
-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09:00~11:30분
- 장 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메트로경제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前 인공지능연구원장)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 SK텔레콤 이종민 상무, 이스트소프트 조성민 본부장,
 - 네이버 신성진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
- 참가비: 사전등록시 무료(현장 신청 5만원)
- 참가신청 및 문의: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수능 D-3, 좋은 성적을 기원하며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나흘 앞둔 학부모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긴 후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

LG의 특허 칼 끝, 이번엔 中 TCL로

LTE 표준특허 침해소송 제기
2016년 첫 경고장 보낸 이후
협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LG전자가 지난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쳐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부당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

널리틱스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하며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美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獨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유료방송 M&A 빗장 풀렸다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정부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 대리점에서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를 함께 파는 '교차판매'도 허용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케이블TV 업체 CJ헬로의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어 SK텔레콤 또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 소유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지난 5월 공정위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기업결합과, 경제분석과 전문가들과 심사전담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두 건의 M&A를 모두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는 SK텔레콤과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이미 한차례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78개로 나눠진 방송 권역 중 21개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돼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